‘벽돌책’에 도전해 볼까?

두꺼운 책은 첫눈부터 독자를 압도한다. 분량을 가늠하는 순간 선뜻 손이 가지 않지만, 묘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책의 두께에는 저자가 들인 시간과 출판사가 감당한 공력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제록 도장 깨기〉와 〈밀교, 즉신성불의 길〉은 ‘벽돌책’의 매력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는 천 년을 이어온 선어록을 다시 읽고, 다른 하나는 밀교의 역사와 사상, 수행을 한눈에 펼쳐 보인다. 올해가 가기 전, 조금은 묵직한 책 한 권을 골라보면 어떨까. 읽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래 남는 질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고광 스님의 임제록 도장깨기
고광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760쪽 / 3만2000원

스무 번 번역으로 푼 ‘임제록’
‘12처(處)’ 중심, 핵심 선어 해석

〈고광 스님의 임제록 도장 깨기〉는 전사(前史)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지난해 붓다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가 관심을 받으면서, 그전에 출간했던 〈할!〉도 ‘역주행’하며 완판됐다. 〈임제록〉을 19번이나 번역·퇴고해 펴낸 책이었지만 스님은 이참에 내용을 더 다듬기 위해 다시 번역을 시작했다.

대체 〈임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스무 차례나 번역하고 퇴고한 것일까?

〈임제록〉은 당나라 선승 임제의현의 법문을 제자 삼성 혜연이 기록한 선어록이다. 달마에서 혜능, 마조와 백장, 황벽으로 이어진 조사선의 흐름을 계승한 임제의 가르침은 이후 임제종이라는 거대한 선맥으로 이어졌다. 한국 선불교 역시 임제의 법맥을 잇고 있다.

그만큼 익숙한 책이다. 동시에 쉽게 읽히지 않는 책이기도 하다. 임제의 말은 거침없다. 상대의 생각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듯한 ‘할’이 등장하고, 때로는 부처를 죽이고 조사까지 죽이라[殺佛殺祖]고 한다. 그래서 〈임제록〉은 오랫동안 선의 파격과 자유를 상징하는 텍스트로 읽혀왔다.

그런데 가장 익숙한 구절이 고광 스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흔히 ‘어디에서든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실하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문장이다.

“부처님은 무아(無我)를 깨달았는데, 그 제자가 없던 자아(自我)도 만들어서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의문을 품은 스님은 이 문장이 등장하는 구절을 모두 찾아 읽었다. 니까야와 〈아함경〉을 함께 살피고, 한역 경전의 용어와 어원을 추적하면서 ‘처(處)’라는 한 글자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교의 중요한 인식 구조인 ‘12처’를 해석의 중심축으로 세운다. 12처는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고 ‘나’와 ‘대상’을 구분하는지를 살피는 틀이다. 고광 스님은 ‘처’를 장소가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성립하는 인식의 작용으로 읽는다.

그러면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의미가 달라진다. 어디서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삶의 지침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이 된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세계가 과연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지, ‘나’라는 존재 역시 어떤 인식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하나의 질문이 〈임제록〉 전체를 읽는 열쇠가 된 셈이다.

고광 스님은 12처를 중심으로 ‘진정견해’, ‘무위진인’, ‘살불살조’ 등 임제의 핵심 선어를 새롭게 풀이한다. ‘진정견해’는 세계를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지 않는 견해로, ‘무위진인’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자아를 참된 자기로 붙잡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자리를 직접 살피는 말로 읽는다.

‘살불살조’ 역시 마찬가지다. 부처와 조사를 실제로 부정하라는 극단적인 선언이 아니다. 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특별한 체험이나 깨달음마저 하나의 실체로 붙잡는 순간, 그것 역시 집착이 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결국 임제의 파격은 무엇인가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게 하기 위한 파격이다. 불교에 기대고, 수행에 기대고, 깨달음이라는 관념에 기대는 순간조차 다시 돌아보라는 것이다.

고광 스님은 익숙한 번역을 의심하고 다른 경전과 대조하면서 임제의 말을 다시 살려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선어록을 ‘공부해야 하는 고전’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생각을 비춰보는 거울로 만나게 된다.

책의 두께가 부담스러운 독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아도 좋다. 한 문장을 읽고 멈춰도 된다. 오히려 그 한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면 이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미 만난 셈이다.

여수령 기자



밀교, 즉신성불의 길
화령 정사 지음 / 운주사
880쪽 / 5만5000원

밀교의 세계 한 권으로 집대성
역사·경전·철학·수행 등 망라

비밀불교(秘密佛教). 밀교(密教)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진언과 다라니, 손가락으로 맺는 수인, 화려한 만다라, 호마와 같은 독특한 의례와 수행…. 누군가에게는 신비롭고 매력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낯선 불교의 한 영역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밀교, 즉신성불의 길〉은 신비주의나 주술적 불교라는 선입견을 걷어내고 불교사상의 전체 흐름 속에서 밀교를 살펴보는 책이다.

두꺼운 분량만큼 다루는 범위도 넓다. 밀교의 기원과 역사에서 시작해 경전과 철학, 만다라, 진언과 수인, 관법에 이르기까지 밀교의 거의 전 영역을 한 권에 담았다. 그러나 이 책이 백과사전식 개론서와 다른 점은 그 많은 내용을 하나의 질문으로 묶어낸다는 데 있다.

‘밀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즉신성불(即身成佛)’로 모인다.

말 그대로 ‘이 몸 그대로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무엇이고, ‘성불’은 무엇인가. 책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밀교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핀다.

밀교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별개의 불교가 아니다.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사상적 전개 속에서 형성됐으며, 중관의 공사상과 유식사상, 여래장·불성사상, 화엄사상 등 앞선 불교의 다양한 성과를 받아들이고 융합하면서 독자적인 교리와 수행체계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밀교를 이해하려면 진언이나 만다라 같은 외형적인 특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놓인 사상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책이 많은 지면을 들여 밀교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밀교의 수행법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낯설고 신비롭게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상적 토대에서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핵심은 몸과 말과 마음이다. 밀교에서는 이를 신밀(身密)·구밀(口密)·의밀(意密)이라고 한다. 손으로 결인하고, 입으로 진언을 염송하고, 마음으로 관법을 행한다. 몸과 말과 마음을 따로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 부처의 몸·말·마음과 상응하도록 한다.

우리는 흔히 마음만 바꾸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몸은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말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서 삶의 분열이 생긴다.

밀교의 삼밀수행은 바로 이 분열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이다. 몸과 말과 마음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

이 지점에서 ‘즉신성불’의 의미도 달라진다. 즉신성불은 특별한 신통력을 얻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죽고 난 뒤 다른 세계에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몸과 삶을 떠나 별도의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은 무엇일까. 아자관, 월륜관, 오상성신관, 오자엄신관, 준제법을 비롯해 진언과 결인, 본존관, 다라니 염송, 만다라관, 오륜탑관, 호마법 등은 각각 따로 떨어진 신비한 의식이 아니다.

각 수행법은 몸과 말과 마음을 하나로 하고, 수행자 자신과 부처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득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

책은 각 수행법이 어떤 교리적 배경에서 비롯됐고, 무엇을 관하며, 수행자가 무엇을 체득하고자 하는지까지 설명한다.

그래서 밀교 수행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일종의 ‘전체 지도’ 역할을 한다.

밀교라는 넓은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조망하고 싶다면 이 책의 묵직함을 기꺼이 감수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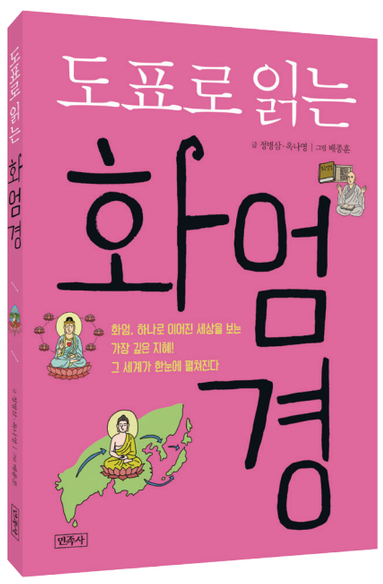
저자는 불교총지종 정사로 동국대 역경위원, 총지종 교육원장, 보디미트라 ILBF(국제재가불자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80권『화엄경』, 한 권으로 읽는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인 화엄의 세계
복잡한 사상과 선재동자의 여정을 도표와 그림으로 읽는다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방대한『화엄경』의 전체 구성
복잡한 내용을 도표로 한눈에!

화엄이 말하는 핵심 사상
어려운 교리를 그림과 해설로 쉽게!

보살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수행의 단계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선재동자와 53선지식
「입법계품」의 장대한 구도 여행까지!



글 정병삼·옥나영 | 그림 배종훈 | 192쪽 | 18,500원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